

“재발심·대분심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라”

부다가야 첫 한국사찰
 현지운영 총괄자 임명

분향사 건립추진 협약 체결

진제 중정예하

기해년 동안거 해제범어

이 주장자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쌍자 쌍용(雙遊雙用)을 자재(自在)하게 쓰고 천상인간(天上人間)에 홀로 걸음 하리라.

금일은 기해년(己亥年) 동안거 해제 일이라. 결제(結制)와 더불어 반절이 지나는 듯하더니, 어느새 해제일이 도래했음이라. 세월의 흐름이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으로 느껴짐이라. 그러니 내일, 모래로 미루다 가는 어느새 백발이 되고, 눈과 귀가 멀어지므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해제일인 지금 재발심과 대분심(大憤心)으로 정진의 끈을 놓지 말고 가일층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

부처님께서 2600년 전 남월(臘月) 8일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신 광대무변한 진리의 법은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제(未來際)가 다해도 변함이 없음이라.

또한 부처님께서 일념삼매에 들어서 보는 것도 잊고, 듣는 것도 잊은 상태에서 새벽별을 보는 참나에 깨달으신 과정도 변함없는 진리이다. 일념삼매(一念三昧)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일념(話頭一念)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습관처럼 좌복(坐臥)에 앉아서 번뇌망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침(昏沈)에 빠져 있거나, 게으름 마음으로 방일(放逸)한다면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가 출현해서 깨달을 수 없음이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하여만 진의심(眞疑心)이 발동 걸리게 됩니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도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하고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할지이다.

▶2면에 계속

1960~2020 창간 60th 불교신문

‘대한민국 리더를 만나다’

②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5면



위례 상월선원 현판 앞에 중정예하, 총무원장 스님과 자리를 함께 한 무문관을 회향한 9명의 스님 모습. 사진 앞줄 왼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진제 중정예하, 상월선원 무문관 회주 자승스님과 (뒷줄 왼쪽부터) 천막결사를 함께 한 인산, 심우, 호산, 진각, 무연, 성곡, 재현, 도림스님.

문 열린 위례 상월선원 “광도중생 매진”

(廣度衆生)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해제
 진제 중정예하-총무원장 스님
 상월선원 결사 대중 찾아 격려

세상을 향해 삼매 올린 ‘9인’
 “마스크·세정제 보시… 헌혈”

기해년(己亥年) 동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2000여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진제 중정예하와 7대 총림 방장 스님들은 이날 법어를 통해 석달간 화두타파를 위해 정진한 안거 대중들을 격려했다. 겨우내 자물쇠가 굳게 걸렸던 위례 상월선원 무문관도 90일 만인 2월7일 문이 열렸다.

유례없는 청규로 동안거 결제에 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포함한 9명 스님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삼매를 올리

며 삼천대천세계에 예경을 표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우려해 해제법회가 전면 취소됐음에도 이날 상월선원에는 1000여 명이 운집했다.

진제 중정예하와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무문관에 입실해 정진 대중 스님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중정예하는 소참법문을 통해 “금일 모든 대중과 유정무정들은 아홉 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하며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바로 보면 일체중생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고 광도중생(廣度衆生)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라고 설했다.

법문 후 천막결사 대중 스님들이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난방기구 하나 없는 냉골 바닥에서 묵언하며 씻지 않고 한 벌 옷으로 생활하면서 하루 한 끼 공양하고 14시간씩 참선하며 한국불교사상 조유의 천막결사를 마친 스님들을 눈앞에서 보고 사

부대중은 환희심을 감추지 못했다.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선원장 무연스님, 임승 진각스님, 한주 성곡스님, 지객 호산스님, 지전 재현스님, 정통 심우스님, 시자 도림스님, 다각 인산스님 등 9명 스님들은 상당히 수척해 있었다. 때 묻은 승복에 머리카락과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으나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서는 환한 빛이 어렸다. 확 달라진 9명 정진대중을 본 스님과 불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6면

천막결사를 원만하게 회향하고 선방문을 나서 세상을 향해,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한 것으로 회향법회는 끝이 났다. 백척간두서 진일보한 수행자의 면모를 보기 위해 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은 “수고했다”며 인사했다. 쏟아지는 격려와 환호를 뒤로하고 무문관 대중 스님 9명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무문관 천막결사 후 세간에 나선 스님

들의 첫 행보는 보시행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정진 대중들은 후원받은 공양금으로 마스크 1만 개와 손세정제 1000개를 구입,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후원할 계획이다. 또 스님들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최근 헌혈이 급감해 비축해둔 혈액 재고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도 결심했다. 자신의 몸 일부라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내놓는다는 원력으로 스님들은 2월8일 헌혈하겠다는 원력을 밝혔다.

하남=여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알려드립니다

광주전남 일부 우편배송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2주일간 불교신문 우편배송이 중단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해당지역 : 광주광역시, 영광, 장성,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구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인도 부다가야, 불교 4대 성지이자 1년 내내 순례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 변변한 한국 사찰 하나 없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근



본불교를 복원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적 수행자를 길러내고픈 원력으로 25년 간 한국과 인도를 수차례 오가면서도 마음 한편엔 늘 아쉬움이 자리했다. 아쉬움이 가슴 부푼 기대로 바뀐 건 지난해 ‘백만원력 결집불사’ 소식을 접하면서다. 2월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난 붓다팔라 마하테로 스님(사진)은 “종단이 핵심사업으로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짓겠다고 했을 때 멀리던 심정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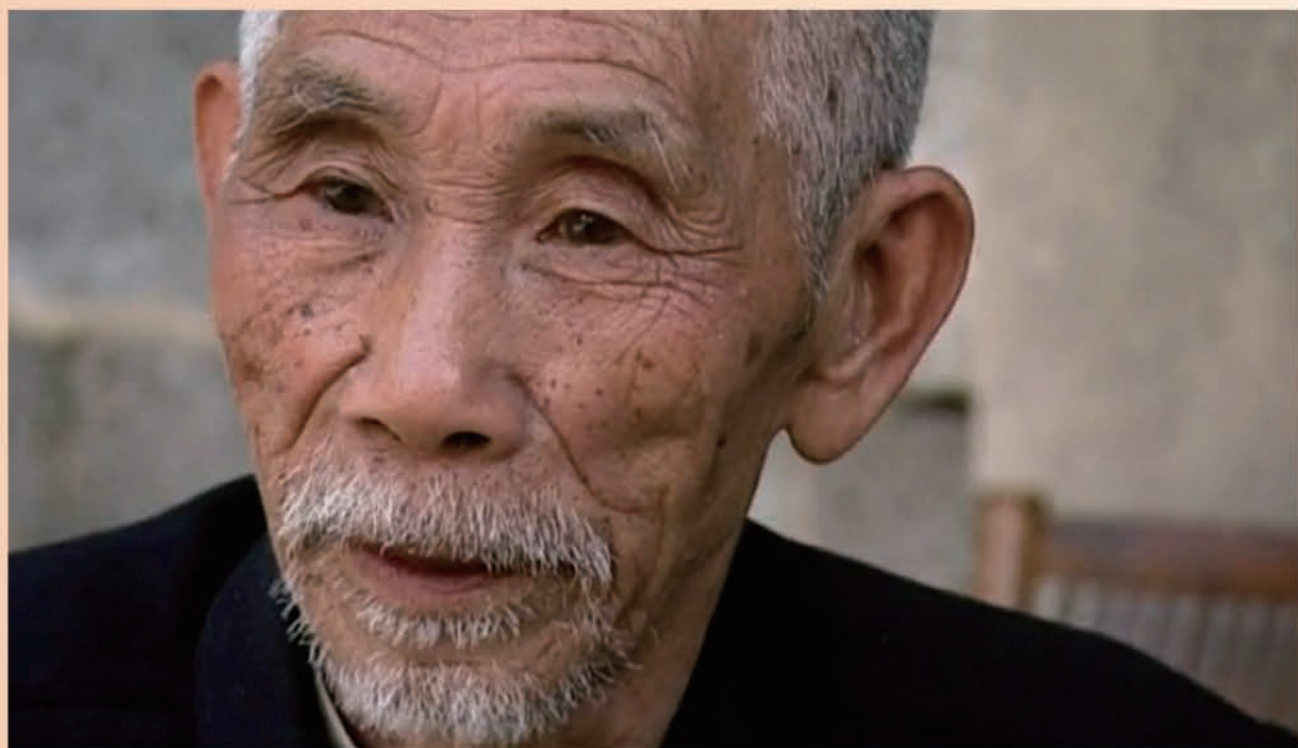
인도 승복을 입고 팔리어 범명을 쓰는 붓다팔라 스님은 한국 출신으로 생의 절반을 인도에서 보냈다.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인도에 첫발을 디딘 것을 시작으로 2001년 본격적으로 정착, 2006년 청하문도회가 설립한 인도 법인 ‘몰라상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현지 수행자로 잔뼈가 굵었다. 남방 불교 전통수행법인 ‘사파’를 가르치는 한국 김해 ‘사파 아라미’ 방장이기도 한 그는 1년에 4~5차례 초기 수행법을 전하기 위해 수차례 양국을 오간다.

인도에 터를 잡은 분향사 건립 소식을 붓다팔라 스님이 누구보다 반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청하문도회가 부다가야 지역 내 30억원 상당의 2000평 부지를 회사하고 두 명의 불자가 건립비용 50억을 쾌척하면서 종단의 인도 첫 한국 사찰 건립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인도를 찾는 한국 스님과 순례객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세계적인 수행자를 길러내는 데 밑바탕이 될 공간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처님 깨달음 성지인 부다가야에 처음 들어서는 한국 사찰인 만큼 한국불교사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붓다팔라 스님은 ‘분향사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종단이 사업 추진을 맡고 청하문도회 인도 법인 ‘몰라상가’는 실무와 운영을 담당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2000명 부지를 기증한 청하문도회를 대표해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도 함께 자리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명불허전' 진실된 흑차를 만나다



CCTV 7 <견증> 안화 천량차 무형문화재 전승인 이화당(1928~2016)

질은 빛깔 깊은 여운 이화당 천량차



이화당 백량차(3.625kg)
 이화당 백량차병(180g)

상호: 샤오홍코리아 주식(본사):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71, 101
 홈페이지: www.xiaohongtea.co.kr 문의전화: 02-6328-6800

